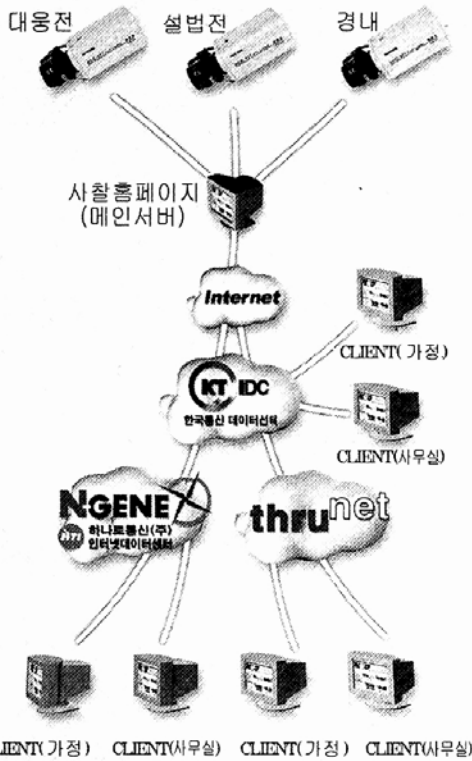


집·사무실서 산사예불 동참

“법당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우리 절 스님들과 함께 아침저녁 예불을 봉행할 방법은 없을까?”

“말도 안 된다”고 핀잔 받을 소리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실로 만들어 준다. 사찰에 설치된 CC TV와 사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영상 기능을 연동하면 CC TV가 촬영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웹 데이터뱅크(대표 김대신)가 자체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콘텐츠 전송 서비스(CDN, Content Deliver Network)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최적화해 전송 속도와 화질의 고품격화를 이룬 시스템이다. 사찰, 공공장소, 유치원 등 현장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전송케 한 것이 ‘이 아이 시스템(e-eye system)’.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되는 대다수 동영상은 화상이 멈추거나 이리저리는 경우, 오디오와 비디오가 따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자주 겪게 된다. 이 같은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고 TV를 보는 듯한 동영상상을 제공하는 (주)웹 데이터뱅크의 기술은 이미 인



CLIENT (가정) CLIENT (사무실) CLIENT (가정) CLIENT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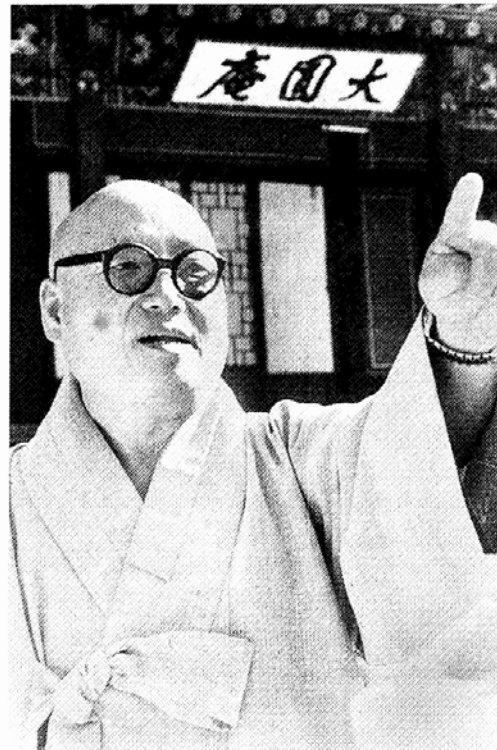
사찰홈페이지 동영상의 실시간서비스 개념도

존의 콘텐츠들도 보다 향상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에도 기술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직 홈페이지를 개설 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주)웹 데이터뱅크의 기술진이 제작하는 고품격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된다.

(주)웹 데이터뱅크는 ‘이 아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찰의 경우 해당 사찰의 이미지와 독경, 예불의식 등을 접합한 화면 보 호기를 제공해 컴퓨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찰을 만나도록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탄허스님 인터넷으로 친견



tanheo.or.kr은 탄허스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다.

탄허 스님(1913-1983) 사진을 만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제작 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도서출판 교림대표 서우담이 공동 제작, 7월부터 본격 공개하게 될 tanheo.or.kr은 탄허 스님이 남긴 방대한 저술은 물론 각종 일화와 사진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탄허 스님이 남긴 저술과 경전현모 및 번역서는 수십 종에 달 하지만 아직 다 출판되지 못한 상태. 거기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 소장하고 있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nheo.or.kr은 탄허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알리고 그 가르침을 현상하는 목적 외에도 흠여진 탄허 스님 관련 자료를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홈페이지에 ‘탄허 스님 시봉일기’ ‘내가 만난 탄허 스님’ 등

의 코너를 마련. 탄허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은 물론 인연이 깊었던 불자들의 허심탄회한 회고와 정겨운 이야기들을 담을 계획이다. 이 두 코너는 그간 묻혀있던 탄허 스님 관련 일화들을 발굴해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tanheo.or.kr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코너들은 다음과 같다. ▲탄허 스님 소개: 탄허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문이 실린다.

▲사진 자료실: 탄허 스님 관련 사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귀하다는 뜻도 된다. 이 코너에서는 탄허 스님의 족적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저술저작: 현재까지 출간된 탄허 스님의 저술 저작물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간략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관련도서: 각종 저술 저작물 등 출간된 도서 안내 코너로 꾸며진다.

▲금석문: 탄허 스님은 비문을 많이 지은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저술·일화·사진자료등 망라 본사, 홈페이지 7월 오픈

생전에 지은 각종 비문들을 통해 스님의 해박한 학문과 문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묵향: 달필이었던 스님은 어느 순간부터 글씨를 남기지 않았다. 스님의 글씨가 돈으로 바뀌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라고 전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스님의 글씨와 그림들을 한데 모을 이 코너에서는 늘 높은 법향이 느껴질 것이다.

▲유적지 순례: 탄허 스님의 출생지는 전북 김제 만경 평야. 바로 진북대사가 태어난 곳과 인접한 곳이다. 이곳 출생지에서 스님의 열반처 오대산 방산굴까지 스님의 체취가 스며 있는 곳들을 영상자료로 만날 수 있다.

▲유물보기: 누구든 칭찬하는 것은 즐겼으나 상 받기를 꺼렸던 스님은 입적 직후에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과 원고 20만매 이상을 집필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 염주 등의 유품과 일제사 보장각에 소장된 유품들을 볼 수 있다.

▲육성듣기: 탄허 스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녹음테이프 수십 개가 교림출판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강지연 기자

스님법문·각종사찰행사 등 e-eye 시스템 실시간 전송

터넷 교육방송(ebs.co.kr)과 sbs(sbs.co.kr)의 TV다시보기 등 콘텐츠의 관리대행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주)웹 데이터뱅크는 3월부터 불교계에 본격적으로 ‘이 아이 시스템’을 홍보하여 사찰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찰이 ‘이 아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불자들이 사찰의 현재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부득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회에 동참 할 수 있다. 물론 오디오 서비스도 가능해 법당에서 설해지는 스님들의 설법도 들을 수 있다. 사찰 홈페이지 관리자가 법회 내용을 녹화해 VOD로 변환,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량의 법회 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의 하나.

사찰에서 CC TV로 주요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계의 네티즌 모두가 정보를 지켜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회 등 주요행사를 실시간 방송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물을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별 동영상 보기 서비스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 ‘이 아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주)웹 데이터뱅크가 설치하는 최고급의 서버를 통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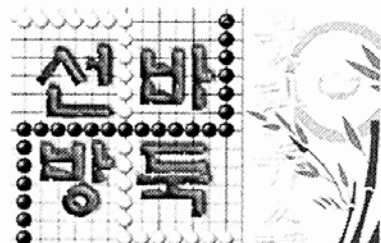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 ‘기선일미(棋禪一味)’를 느껴 보자.

붓다뉴스가 바둑전문 사이트 dashn.com에 ‘붓다뉴스 바둑선방’을 개설했다. 1월 24일 개설한 바둑선방은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와 수담(手談)을 나눌 수 있는 곳. 대국을 하면서 채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복기도 가능하다. 바둑선방에서는 기보 자동저장과 회원 간 쪽지보내기 기능 등 dashn.com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유료회원(월 1만원, 1년 10만원)이 되면 프로 기사 지도 다면기(多面棋) 참여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바둑선방의 회원은 무제한. 전국의 회원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도 단위 혹은 시 단위 소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스님들이 가입할 경우 스님이 지역의 지도법사가 되어 사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법회도 보고 친선대국도

사이버 공간에 ‘바둑선방’ 생겼어요

대국하며 채팅 복기도 가능
유료회원엔 多面棋 혜택



붓다뉴스 바둑선방은 불자 누구나 참여해 수담을 나누는 편안한 곳이다.

대된다. 때문에 초기에는 붓다뉴스 운영진이 시 습을 맡는 등 운영주체를 맡고 있지만 여건이 성숙되는 지역부터 지역단위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

포교인프라 구축 지역별 소모임 구성
동호회 활동지원 각종대회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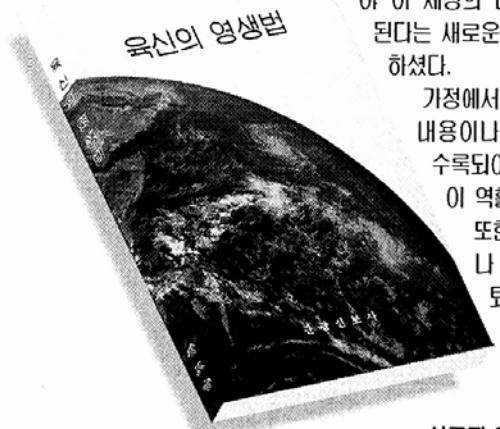
할 계획이다. 바둑선방은 회원들의 친선도모와 바둑을 통한 포교의 일환으로 온라인 바둑대회 등 각종 이벤

도 개최할 계획이다. 바둑선방에 방부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붓다뉴스의 바둑선방 배너를 클릭하거나 dashn.com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전사찰’ ‘프로사범 지도대국’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으면 기력신장이 빨라진다. 바둑선방 회원 가운데 유료회원이 20명 이상 되면 바둑선방 전용 대국마당도 분양받게 된다. 회원 가입 절차가 끝나면 dashn.com 초기화면에서 대국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재부팅 해 로그인을 하고 동호회코너를 클릭, 붓다뉴스 바둑선방을 찾아가면 된다. 주의 할 것은 붓다뉴스 바둑선방의 메인 화면에서 방명록을 클릭 해 자신의 이름과 ID, 주소, 나이, 기력, e-mail 주소 등을 남겨야 바둑선방 회원으로 등록이 된다. (가입문의:시삼 임연태 017-236-5769, 02-722-4162)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되어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연락처 : 031)532-6661 02)2242-1049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지리산자락 우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보통 응답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믹스(가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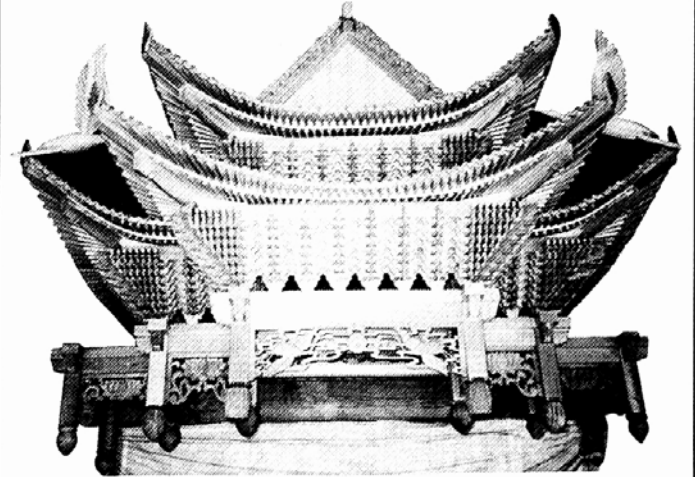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우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사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룬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물이리에서 넣고 왕겨 97가마니를 달은 뒤통기에 불을 쬐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껍데기에 녹아 흘러나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민)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누리공방



블단·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 (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